

## 새 천년을 맞으며



허 동 수

〈LG-Caltex 정유 부회장〉

새 천년의 막이 올랐습니다. 석유업계 관계자 모두에게 건강과 기쁨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20세기는 산업시대의 성숙과 자동차 시대의 본격 개막과 더불어 석유산업도 전성기를 구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원의 유한성과 인류의 생활 수준향상에 따라 대두된 환경문제는 석유산업의 미래가 과거와는 사뭇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최초의 민간 정유회사인 LG-Caltex 정유의 설립과 더불어 독점 구조였던 석유업계도 건전한 경쟁 체제를 갖추기 시작하였고, 품질과 서비스 향상을 통한 소비자 중심의 경쟁 구도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석유업계는 이런 과정에서 기간산업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하였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그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새로운 세기는 산업전반에 걸쳐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석유업계라고 해서 이런 시대적 요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런 변화의 요구 한가운데 서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신탄과 유연탄으로 대표되던 에너지는 석유와 원자력으로, 그리고 이제는 대체 에너지와 LNG등 청정 에너지로 그 관심의 대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좀 더 깨끗하고 편리한 에너지를 원하는 소비자의 요구는 더욱 증대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 변화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 석유업계는 단순한 에너지 생산자라는 위치에서 벗어나 고객에게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하고 공급한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즉 고객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에너지원간의 이상적 결합과 공급을 통해 Energy Solution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LG-Caltex 정유는 새 천년을 맞아 "Total Energy Service"를 기반으로 한 비전을 선포하였습니다.

인류의 삶이 풍요로워짐에 따라 환경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세기 말 환경보전에 관한 대체적인 방법과 목표에 대하여 범세계적인 합의가 있었습니다. 지난 수세기에 걸쳐 인류의 삶은 빠른 속도로 윤택해졌으며 그것은 화석연료 사용 방법의 획기적인 발전에 의한 것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도한 화석연료 사용이 자연환경에 끼친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석유업계는 이러한 사정을 심분 인식하고 새로운 접근방법으로 환경보전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업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는 길이며, 소비자와 국민의 지지를 확보하는 올바른 방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비자, 석유업계 그리고 정부 모두가 동의하는 현실성 있는 기준과 대안을 마련하여 꾸준히 실천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정보통신의 발달로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e 비즈니스는 이제 석유업계에서도 구체적인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에 분포한 영업과 물류망은 e 비즈니스의 관점에서 보면 그 가치는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석유업계도 이러한 인프라를 새로운 시각에서 조망함으로써 업계의 활동범위를 확대하고, 새로운 사업영역을 개척해야 하겠습니다. 아무도 거역할 수 없는 정보화의 물결에 슬기롭게 대응하여 새로운 이익실현의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e 비즈니스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인 전략적 제휴가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제 21세기가 밝았습니다. 석유업계는 국내외적으로 과거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그것은 기회인 동시에 위협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 석유업계는 건전하고 생산적인 경쟁을 통해 소비자의 최대 만족을 실현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업계를 둘러싼 모든 이해 관계자들로부터 정당한 평가를 받고 노력에 상응하는 이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전근대적인 시장질서와 소모적 경쟁 그리고 부분이익 최대화에 집착하여 서로를 배타적 관계로 인식하고 접근한다면, 이는 곧 다른 행위주체의 시장잠식으로 이어질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입니다. 고객과 인터넷, 지식과 물류를 기반으로 한 현대 비즈니스 세계에서 이제는 석유업계 관계자 모두가 현실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선의의 경쟁을 통해, 모두 새 시대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